

# 讀書運動과 圖書館

金 孝 貞  
中大圖書館學科教授

## 緒 言

우리나라에 讀書運動이 서서히 일고 있다. 讀書新聞의 發刊, 自由敎養推進會, 마을文庫 等의 讀書運動에 이어 1975年에는 國際讀書科學會(I.R.A.) 韓國讀書科學會가 韓國行動科學研究所內에 設立되어 讀書의 科學의 研究가 展開되고 있다. 이제까지 韓國의 讀書運動은 圖書館과는 別個의 機關이나 團體에서 主管 또는 催促하고 있어 讀書와 圖書館은 異質의 個體인가 하는 疑問이 일고 있다. 圖書館司書의 立場에서 어떻게 適應해야 할지 深思熟考해야 될 問題로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새삼스러우나 讀書에 대한 概念과 價值를 살피고 圖書館의 機能과 關聯하여 볼 때 讀書運動을 위하여 圖書館이 當面하고 있는 方向을 模索하고자 한다.

## I. 讀 書

人間은 文獻宇宙에 둘러쌓여 情報資料를 읽을 수 있는 機能이 要求되는 時代에 살고 있다. 이 機能을 일컬어 讀書라 한다. 讀書는 人間生活의 어떤 意味를 記號로 記錄하면서부터 수많은 概念과 定義를 抽出해내고 있다. 일찍이 이태리의 Petrarca, F. (1304~74)는 “讀書는 選良한 友人”이라 하였고 英國의 Bacon, F. (1561~1626)은 “讀書는 全人을 만든다”고 하였으며 宋나라 朱熹는 訓學齊規에서 “口到, 眼到, 心到의 讀書三到”를 主張하였다.

讀書에 대한 수많은 定義와 見解를 綜合하면 글을 쓴 筆者와 글을 읽는 讀者 사이의 相互作用이라 할 수 있다.<sup>1)</sup> 이 相互作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讀書活動에 대한 定義는 變遷되어 多樣하다.

첫째 글에 나타난 意味를 찾는 讀者와 筆者사이의 相互作用을 보는 見解로 Staiger, R.C.는 讀者가 視覺的 刺戟을 통해 나타난 筆者글의 意味를 읽어서 理解하는 相互作用을 讀書라고 定義한다.

둘째 讀書를 意思疏通이라고 보는 見解로 Smith, F.는 發信者로 부터 受信者에게 傳해지는 情報에 있어서의 意思疏通行為라고 定義한다.

세째 글을 읽을 때 讀者가 實際로 하는 活動 또는 行動에 強調를 둔 見解로 Russell, D.는 讀書란 反應하는 것으로 이 反應은 낱말을 소리내어 읽는 表面的인 水準일수도 있고 文章, 文段, 글의 드러난 意味를 理解하는 좀 더 높은 水準일수도 있으며 單純한 事實을 넘어서個人的인 意味의 發見일수도 있다고 하여 讀書는 筆者が 表現한 생각과 觀點을 讀者가 確認(identify), 解釋(interpret), 評價(evaluate)하려고 推求하는 活動이다.

네째 讀書의 知的인 面의 行動水準과 內容水準, 그리고 讀者의 發達水準을 考慮한 見解로 Harriss, A.J.는 印刷된 資料에 適切하게 反應하는 行爲라고 하였다. 初步者에게 있어 讀書는 낱말을 나타내는 資料(文字, 記號)를 認知하는 學習이 大部分 關係되어 있고 讀書行爲가 熟達됨에 따라 그 讀書方法은 讀書目的과 資料의 性質에 맞추어서 變化하게 된다. 讀書의 認知的 側面에서의 技術이 完成됨에 따라 讀書의 推理의 側面이 점점 重要하게 된다. 그러므로 讀書의 本質은 절 成熟된 水準에서 보다 成熟된 水準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다섯째 讀書의 知的인 側面보다 情的인 側面에 強調를 둔 見解로 Strany, R.은 讀書란 낱말을 明確하게 보는 것 印刷된 낱말을 바르게 發音하는 것 分離된 낱말들의 意味를 認知하는 것 이상이다고 하고 讀者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게 하며 상상하게 한다고 하였다.

둘으로 讀書는 結果의 適應까지도 幅넓게 다루는 見解로 Chall, J.S.는 讀書過程은 처음부터 낱말 認知뿐 아니라 읽은 內容에 대해 理解(comprehension) 解釋(interpretation) 鑑賞(appreciation) 및 適應(application)을個人的인 問題와 社會的인 問題까지 擴大하는 것이 主要한 目的이라고 幅넓게 定義하고 있다.<sup>2)</sup>

以上의 定義를 바탕으로 現代社會의 讀書는 讀者의

1) 權鈞 等, 讀書行動開發의 理論의 基礎, 서울, 行動科學研究所, 1976. p. 2~3.

2) Chall, J.S. ed. Learning to read. N.Y. McGraw-Hill, Inc., 1967.

腦가 글의 表面構造를 보고 글의 內面構造를 把握하여 이를 分析하고 綜合하므로 둥동그려서 理解하는 일이다.<sup>3)</sup> '글의 表面構造를 보는 것'은 상징적인 意味를 文字나 記號로 나타낸 文字의 理解(生理過程)이다. '글의 內面構造把握'은 文字나 記號의 상징적인 意味를 理解하는 内容認知로 讀者의 腦作用인 知的思考(思考過程)이다. '이를 分析하고 綜合하므로 둥동그려서 理解하는 일'은 筆者の 思想과 經驗을 自己것으로 받아들이는 感情의 理解過程(情緒過程)과 思考過程의 混合인 것이다. 따라서 讀書는 讀書資料, 讀者의 知識經驗, 讀書力, 讀書目的, 趣味에 영향을 받는다.

이같이 포괄적인 뜻을 가진 讀書의 概念은 讀書의 價值를 살펴보면 더明白하게 할 수 있다.

## II. 讀書의 價值

### 教育의 面에서의 讀書의 價值는

#### ① 人間의 가장 基礎的인 學力이다.

讀書는 教育過程에서 必須의 機能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基礎學力의 不振은 學習의 不振, 나아가 教育의 不振으로 認識되어 있다. 特히 讀書力이 不足하면 學校의 모든 知的인 學習에서 뒤떨어지게 되며, 上級學校進學에는 더욱 심한 困難을 겪는다. 이 점에서 基礎學力인 讀書의 成敗는 教育의 成敗를 左右하는 基礎的 學力인 것이다.

#### ② 教科學習에 核心的인 過程이다.

讀書는 教科學習에서 얻어진 直接經驗과 間接經驗을 高度의 價值體系로 體系化시킨다. 즉 막연하고 어렴풋한 經驗을 實在하게 다치면서 知的인 蕊積을 可能하게 한다. 이같이 각 教科學習에서 讀書를 통해 豫習과 復習으로 그 結果를 確認하고 蕊積된 지식정보를 정비 정돈하는 것이다. 이에 학습의 核心的 過程인 讀書의 價值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 ③ 生活指導가 이루어진다.

筆者の 사상과 感情을 읽고 느끼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생활에서 讀者의 일상의 價值를 提供하는 것이다. 讀書로 讀者의 生活이 改善되는 것은 곧 生活指導가 이루어지는 것을 意味한다.

### 心理的 面에서 讀書의 價值는

讀書로 全人的 人格形成을 이룬다는데 있다. 人格이形成되는 過程은 人格의 同化, 自己強化, 人格의創造의 形態로 發展된다.

① 人格의 同化는 筆者の 경험을 얻고 筆者の 思想感情에 同化되어 主人公과 同一한 生活態度를 推求하

는 데서 筆者人格에 同化하는 것이다. 더욱 人間의 基本要求(生理的, 自立的, 社會的)를 充足시켜가는 가운데 筆者の 사상과 感情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

② 讀書로 自己強化는 筆者の 思想,感情에 친동하거나 批判하고 反撥하므로 內容에 同化되는 것을 拒否하고 自己自身의 方向을 세우고 지켜 나가면서 筆者에 대해 自己主體性을 強調하는 경우이다.

③ 讀書로 人格의創造는 人格의 同化와 自己強化가 同一하게 한個人에게서 이루어지면 새로운 思想感情經驗을創造해 내게되고 나아가 새로운 自己의 人格再體制가 이루어진다. 즉 독서를 통한 人格의創造가形成되는 것이다. 더욱 讀書는 日常生活에서 當面한 欲求不滿을 적당하게 처리해서 인격의 異常適應을 방지하는 데도 그 價值가 있다.

### 讀書의 社會的 價值는

Communication과 文化面에서 살필 수 있다.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기에 社會의 共同生活을 추구한다. 社會의 共同生活을 營爲하는 데는 人間의 意思疏通이 결실하게 要求되고 있다. 독서는 편자와 독자간의 하나의 의사소통이기에 Mass Communication에 屬하여 원만한 社會生活을 위하여 人間 누구에게나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現代社會에서 Communication의 發達은 讀書의 弱化와 同時に 強化를 가져온다는 것을 留意하여야 한다.

한편 人間은 自然環境을 資源으로 하여 勞動과 技術을 加하여 (人爲의으로 變化시켜) 人間의 社會生活을 豐富하게 하는 文化를 누리고 있다. 即 社會의 共同生活에서 自然環境과 人文環境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歷史的 社會의 文化的 發展을 추구한다. 여기에 人間이 內面化하는 過程은 讀書를 通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人間의 思想感情行動을 높이고 思想態度技術을 形成하여 事物을 認識하고 實踐하는 文化的媒介役인 社會의 行爲가 곧 讀書인 것이다. 文化的傳達과 創造가 讀書로 이어지는 것이다.

## III. 現代讀書의 特性

讀書의 定義와 價值를 現代社會와 관련하여 보던 현대독서의 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 讀書는 最適의 教育方法이며 生活수단이다.

急速한 社會變化가 계속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에 걸쳐 새로운 事物 知識 狀況을 만들어내고 곧 그들은 陳腐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게 되어 人間의 主要活動이

3) 金炳元, 讀書와 讀書指導, 서울, 寶林出版社, 1976. p. 224~245.

平生을 통한 學習과 再學習으로 充當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배우는데 있다. 미래를 지향하는 教育의 중요과업은 피교육자가 현실의 교육과정을 배우게 하는 이상을 넘어서서 배우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일이다. 배우기를 배운 가장 좋은 표식과 보장은 효과적인 독서와 독서습관에 있다. 이로써 개인은 평생을 통한 自己教育의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生活의 情報와 知識을 讀書로, 업무에 社會現狀에 대처하므로 社會生活의 安定, 健全한 테크레이션, 풍부한 生活人이 된다. 곧個人의 發展인 교육과 생활을 위한 情報媒體의 獲得수단이다.

들께 讀書는 創意力의 源泉이다.

人間의 생각을 넓고 높고 깊게 하는 데는 讀書의 作用이 크다. 다시 말해 讀書는 人間의 思考資料로 다른 經驗媒體를 通한 資料가 圖像의이고 作動의 表現에 의지하는데 비해 複雑 知的으로 高等한 象徵的 表現으로 供給한다. 人間이 쓰기와 읽기없이 말하기와 듣기에만 의존했더라면 人間의 모든 文化와 文明은 大部分 不可能했을 것이다. 象徵의 情報輸入으로서의 읽기는 필연 고등한 상징적 추상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다른 지적 수단과정의 매체에 비하여 사고에 그 만큼 더 통합하는 그리고 명석화하는 効果를 갖는다.<sup>4)</sup> 여기에 새로운 知的 體系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보의 창의가 實行되고 있다. 고로 讀書는 새로운 정보의 創案過程이며 따라서 創意力의 源泉이 된다.

세계 讀書는 國家資源開發의 原動力이다.

현대적인 국가발전은 경제발전에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은 공업발전에 의존한다. 공업의 발전은 무엇보다 기술공업에 의존한다. 이 기술공업은 과학의 소산이며 또 科學은 學門으로 合理的인 知的 過程의 소산이다. 이 知的 過程은 情報輸入으로의 읽기와 情報輸出로의 쓰기가 상징적 추상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활동은 기술—과학—지성의 연쇄적 추리가 필요하다. 힘과 감정에의 호소는 합리적인 조치와 설득력없이는 안전성과 생동성을創出하지 못한다. 또한 어떤 發展過程에도 여러 정신, 신념, 가치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發展過程의 最前方을 知的 要因이다. 한 국가의 지적 기능의 수준은 국가발전에서 최전선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고로 독서는 국가자원개발의 原動力이다.

現代 독서의 특성에서 讀書는 消費가 아닌 再投資이며 生產과 繁榮되는 活動임을 확인하였다. 이 독서는 독자와 필자간의 전달내용인 圖書資料가 반드시 필요

하다. 이 資料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분석 조정 매개하는 곳이 곧 도서관인 것이다.

#### IV. 讀書活動과 圖書館機能

現代 文化人에게 讀書를 강조하는 것과 같이 도서관도 강조되고 있다.

도서관은 人間이 읽거나 보거나 듣는 作用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認識하거나 感상할 수 있는 資料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분석 조정 매개하여 인간의 교양과 조사연구, 테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므로 인류문화 创達의 조건조성을 형성하는 사회기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목표는 교육(학습) 정보전달, 조사연구, 예술의 감상, 테크레이션에 있다.<sup>5)</sup> 즉 도서관은 이용자의 자기교육, 지식정보, 오락 등의 滋求라는 공통된 요구에 이바지할 책임이 있는 사회기관인 것이다. 도서관의 기능과 독서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情報資源의 機能

圖書館은 資料센터로 읽고 보고 느끼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資料의 番(Bonanza)이다. 古代에서 現代까지 범람하는 情報와 知識을 集大成하여 學習과 教育調查研究, 테크레이션 및 生活에 必要한 情報를 모우고 있다. 이 자료의 蔽集은 利用될것을前提한 것이고 利用된다는 것은 大體의으로 人間의 讀書行為를 통해 筆者の 어떤 意味를 받아 들인다는 社會의 約束인 것이다. 讀書活動을前提하지 않은 情報資源은 무기 없는 軍人の 集合場이요 對話없는 會議場으로 어디까지나 効用價值없는 休紙의 集散처이지 情報와 知識의 Bonanza는 아님 것이다. 고로 讀書活動없는 情報資源의 機能은 圖書館의 存在를 否認하는 것이다.

##### ② 教育機能

情報자료를 통한 도서관이용 教育, 독서지도, 教育지도는 도서관의 主된 教育的 활동이다. 圖書館利用教育은 정보와 지식을 그대로 전달받지 않고 그 소재를 찾아내고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곧 배우는 것을 배우는 자기교육의 방법 획득이다. 독서지도는 독서인격을 목표로 독서력의 개발, 독서습관의 형성으로 독서를 통한 생활지도에서 새로운自我形成인 人格形成이 이루어지고 있다. 情報 및 知識의 環境造成은 無形의 教育(silent teaching)効果를 누리는 讀書文化形成이 되는 것이다. 讀書의 教育의 價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基礎學力인 讀書活動 없이 圖書館의 教育機能은 不可한 것이다. 教育에서 內容傳達은 讀書로 確認되고 정비된다. 그러나 정보매체가 독서가 아닌 시청각의

4) 鄭範模. 讀書力과 國家發展. 國際讀書教育세미나르 主題發表 論文. 1976. p. 2

5) 圖書館法 第 2條.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쳤다해도 知的 思考인 頭腦作用의 미비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빈약하고 發展과 向上을 기대할 수 없다. 고로 독서활동없는 教育은 상정 적수입에 의한 고등한 지적작용의 결여로 항상 유치원 교육과 같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③ 奉仕機能

蒐集된 資料를 利用하기 便利하게 分類 目錄 裝備 配架하여 特定資料는 分析調整하고 媒介하므로 資料利用에 積極奉仕하는 機能이다. 効率的으로 容易하게 利用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고 열람대출 참고업무도 讀者에게 資料提供을 위한 봉사라 할 수 있다. 특정자료의 서지, 서평, 해제작업 역시 적절한 독서자료를 매개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독자와 자료를 매개하는 사서의 基本的인 업무이며 봉사로서 이용자의 독서활동이 전제된 것이다.

한편 도서관에서의 여러집회활동 전후에도 독서활동과 有關하다. 비록 독서활동이 아닌 집회활동이라도 독서를 유도하거나 매개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떠난 도서관의 봉사활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 ④ 테크레이션機能

圖書館資料를 利用하여 餘暇를 선용하며 전전하게 休息하므로 情緒的인 安定을 찾고 새로운 活動展開의 前衛가 되는 機能이다. 곧再生產을 위한 투자로 테크레이션機能이 높이 評價된다. 圖書館에서 이 機能의 基本的인 手段은 역시 讀書이며 健全한 文學作品을 鑑賞하고 Best Seller를 突破하며 音樂, 美術資料를 通해美的 感興과 함께 安定된 분위기를 形成하게 된다. 따라서 讀書活動없는 테크레이션機能은 一般社會의 誤樂場所나 社交場과 다른 點을 發見할 수 없을 것이다.

#### ⑤ 調査研究機能

圖書館은 情報資源으로 文化遺產을 蒐集整理하고 保存하면서 이를 分析調整媒介한다. 이로써 새로운 方向探求를 支援하고 創意的인 文化形成을 造成하고 있다. 文化傳達을 위해 3R은 傳統的 教育인 것이다. 여기에 視聽과 行動을 追加해야 할 必要是 있으되 그것이 3R을 對置하는 것은 아니고 補完함에 그친다. 왜냐하면 視聽嗅覺을 通한 感覺資料는 高等한 知的 思考를 必要로 하는 概念資料가 아니다. 概念資料를 提供하는 讀書는 高等한 知的 思考를 蓄積해간다. 高等한 知的 思考의 結果는 科學을 낳고 發展的 科學은 技術工業을增進시키며 技術工業은 現代經濟發展을 이루게 된다. 곧 圖書館의 調査研究機能은 圖書館을 情報資源으로 하여 國家發展에 原動力이 되게 한다. 知的 思考인 讀書活動없는 圖書館의 調査研究機能이 瘦薄되고 國家發展도 있을 수 없다.

以上 살펴본 圖書館의 各 機能에서 讀書와 圖書館의

密接한 關係를 確認하였고 讀書活動없이는 圖書館의 各 機能이 否認됨을 認知하였다. 이 經驗의 真理를 들추어 眼에 본것은 매스콤에 의해 疏外되던 讀書가 現代人間의 基本行爲임을 自覺시키고 社會發展과 國家發展에 原動力이며 新しい 創意力의 源泉임을 認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讀書와 圖書館과의 密接한 關係를 考慮할 때 現代圖書館이 독서운동 展開를 위해 어떻게 適應해야 하나의 問題가 있는 것이다.

### V. 讀書運動 展開와 效率的 奉仕

讀書에 대한 視知는 未來를 志向하는 社會일수록 더욱 切實하다. 물과 空氣의 고마움을 잊고 있드시 現代人은 讀書의 價値를 確實하게 分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自我發見, 自己更新, 社會發展 나아가 國家 및 世界의 繁榮이 讀書活動에 달려 있음은 自明한 事實이다. 讀書가 重視되는 現代社會는 讀書力의 開發, 讀書習慣의 形成, 讀書文化環成의 急先務이다.<sup>6)</sup> 圖書館의 效率的奉仕는 讀書文化環境을 造形하는데 基本이 되고 讀書環境造形에서는 讀書習慣이 形成되어 이어 讀書力의 開發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讀書活動과 圖書館이 서로 密着해서 協助한다면 어느 機關보다 바람직한 讀書運動을 容易하게 展開할 수 있다. 圖書館은 豐富한 讀書資料를 갖고 있고, 司書의 能動的媒介役割, 讀書환경 조성으로 讀書運動을 支援할 수 있기 때문이다. 讀書運動의 增進은 곧 圖書館의 效率的奉仕와 直結되는 것이다. 反面 圖書館의 效率的奉仕는 讀書運動으로 새롭게 變貌될 수 있다. 여기서 圖書館이 讀書運動에 의한 新しい 方向모색에는 다음의 問題點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圖書館敎育過程에서 讀書専門家の 資質을 體系있게 다루어야 한다.

讀書活動없는 圖書館은 그 機能을 다 할 수 없음에 비추어 圖書館奉仕는 司書中心으로 資料와 讀者를 媒介하고 指導하는奉仕活動이 위주가 되기에 司書資質에 讀書의 專門的 background이 要求된다. 이로써 수동적 圖書館奉仕를 능동적으로 變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讀書資料의 整備作業은 司書가 主管해야 한다.

資料와 讀者사이의 媒介가主任務인 司書가 讀者를 意識한 書誌統整은 資料便의 評論家나, 出版者, 讀者便의 教師나 父母보다 有効하고 公正할 수 있고 司書들의 書評, 書誌解題가 社會의 良書選擇의 基準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讀書運動에 이바지하는 길이 된다.

세째 讀書運動을 讀者의 系層別로 적극 추진하여 圖書館對外奉仕網을 強化해야 한다.

노인, 청소년, 어린이로 독서계층을 나누어 독서회

6) 鄭範模, op. cit. p. 4.

운영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도서관의 대외봉사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적극적인 도서판봉사가 이루어진다.

讀書의 價值를 認定하는 現代社會에서 圖書館이 读書運動과 함께 하지 않으면 効率的 能動的인 圖書館運營을 기대할 수 없고 陳腐한 文獻資料의 草集保管處로 轉落될 危機에 놓여지는 것이다.

### 結 言

讀書는 現代人에게 要求되는 人間의 基本行爲로 读書가 文字記號로 나타낸 文字의 理解와 生理過程과 文字의 象徵的 意味를 理解하는 內容認知와 知的 思考過程을 거쳐 筆者の 意味를 自己것으로 받아들이는感情의 理解過程인 情緒過程의 連續이다.

讀書의 教育的 心理的 社會的 價值를 考慮할 때 現代讀書의 特性은

① 读書는 最適의 教育方法이며 生活手段이다.

② 读書는 創意力의 源泉이다.

③ 读書는 國家資源開發의 原動力이다.  
로 規定된다.

이러한 读書活動과 現代圖書館의 關係는 서로 密着되어 读書活動의 圖書館은 効用價值敘는 休紙의 集散處이며 情報와 知識의 Bonanza는 아니다. 또한 상정적수입에 의한 고등한 知的 思考의 결여로 創意活動이 弱化되어 調查研究機能이 마비되어 國家資源開發과 發展도 기대할 수 없는 낡은 情報와 知識의 保存일 뿐이다.

圖書館은 豐富한 故書資料, 司書의 能動的인 媒介役割, 读書環境造成으로 读書運動을 支援할 수 있기에 读書活動과 圖書館이 서로 密着해서 協助한다면 바람직한 圖書館奉仕의 効率化가 读書運動으로 展開될 수 있다. 따라서 司書에게 读書專門家の 資質을 具備시키고 读書資料의 統整을 圖書館司書가 責任지며 圖書館對外奉仕網을 通한 積極的인 读書運動이 효율적인 圖書館奉仕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 各 図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 THE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를 拜受하고 있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鍾路區鍾路小街 40 電話(72)5131~33